

## Korea Smart Grid Week를 준비하며



문 호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부회장

이명박 대통령이 "단군 이래 대한민국이 세계에 이만큼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할 만큼 전 세계의 이목을 대한민국에 집중시킬 서울 G20 정상회의 기간에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상이 2,000여명의 외신기자들의 펜을 통하여 세계에 전달될 것이다.

스마트 그리드 업계도 녹색성장이 향후 세계 경제 발전의 핵심이고 녹색성장의 핵심은 스마트 그리드 산업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국내 스마트 그리드의 국제협력 활성화와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해 서울 G20 정상회의 기간 중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가 위치한 제주도에서 'Korea Smart Grid Week' 행사(11월 8일~14일)를 추진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컨퍼런스, Biz Fair, 종합홍보관과 체험관 투어, 국제회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제주 스마트 그리드 실증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기업들이 준공하는 종합홍보관과 개별체험관 투어를 통해 미래 Energy Internet 시대에 등장할 새로운 시스템들을 직접 체험하게 되고, 스마트 그리드 실증 전문가들의 경험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하여 상호 논의하는 '실증단지 운영자 컨퍼런스'와 미국 NIST와 EU, 일본 등 스마트 그리드 국제표준전문가들이 발표하는 Forum을 통해 수준 높은 스마트 그리드 관련 정보를 얻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15개국의 차관급 고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ISGAN(International Smart Grid Action Network) 회의와 28개 회원국에서 100여명이 참여하는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스마트 그리드 Workshop이 동 기간에 개최되고, 지난 9월 24일 창립된 GSGF(Global

Smart Grid Federation)의 첫 번째 이사회를 유치함으로써 200여명의 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 전문가 및 고위 관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KSGW 행사는 국제적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는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회의와 전시회들이 다양하게 열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 Grid Week가 4년째 열리고 있으며, 미국 GWA(Gridwise alliance)는 Grid Week와 결별하여 Gridwise Global Forum을 새로이 개최하는 등 국제행사를 통한 국제간 정보공유와 자사의 제품 홍보에 적극적이다.

협회에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 유럽 등 각국에서 개최하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 행사에 대한 홍보 및 협조요청이 부쩍 늘고 있어 스마트 그리드 관련 국제 행사가 하나의 시장을 형성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2030년 세계 최초의 국가단위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한전을 중심으로 한 전력기술과 IT강국의 정보통신 기술을 효율적으로 융합하고 협회의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달성될 것이다.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되어 있는 서울 G20 정상회의 기간에 정부·산업계·유관기관이 하나가 되어 KSGW 행사를 준비하는 손길은 바쁘기만 하다. 세계 어느 곳에도 종합적인 실증단지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들을 구현한 5개의 체험관을 볼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이나 연구소의 대표들은 전세기라도 태워서 보낼 만 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 틀림 없다. KEA

